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1, pp. 83-90, February 29,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83
JCCT 2020-2-11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Their Burnout

오진경*, 김상림**

Jin Kyung Oh*, Sang Lim Kim**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 및 소진 간 관계를 살펴보고,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 251명이다. 연구대상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 및 소진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기술통계분석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자료분석에서 소진과 회복탄력성은 총점을 사용했으며, 정서노동은 하위요인(자연적행동, 내면적행동, 표면적행동) 점수를 사용했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보육교사의 자연적행동과 내면적행동은 소진과 부적 상관관계이고, 표면적행동은 소진과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표면적행동은 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회복탄력성은 소진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보육교사, 소진, 정서노동, 회복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their burnout. The subjects were 251 childcare teachers in Metropolitan area, South Korea. Subjects'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burnout were measured using the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and analysis of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1.0. In the procedure of data analyses, while the total scores were used for resilience and burnout, each score of the sub-factors (natural acting, deep acting, and pretending acting) were used for emotional labor. As results, childcare teachers' natural acting, deep acting, and resilience ha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with burnout, but pretending acting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it. In addition, childcere teachers' pretending acting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ir burnout, and resilience had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it.

Key words : Childcare Teachers, Burnout, Emotional Labor, Burnout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가족구조 변화와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공보육의 질적 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양육과 교육의 기능이 상당 부분 어린이집으로 이양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포괄적인 보

*준회원,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0년 01월 01일, 수정완료일: 2020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01월 25일

Received: January 1, 2020 / Revised: January 16, 2020
Accepted: January 25, 2020
*Corresponding Author: slkim@in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 따라서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을 위해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보육교사는 다양한 역할과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심리적인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2]. 소진(burnout)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는 정서적, 육체적, 태도적 고갈로 정의된다[3]. 즉, 교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나 기대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스스로 무력감과 상실감,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 심리적인 소진이 초래된다[4]. 보육교사의 소진은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3]. Maslach와 Pines[5]에 의하면 소진된 교사는 영유아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고 거리감을 두며, 소극적이면서 기계적으로 영유아를 대하게 된다. 결국 소진은 영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소진을 야기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정서노동을 들 수 있다[7-8]. 정서노동은 개인의 정서를 기관의 목적과 정서표현규범에 맞춰나가도록 정서를 관리하여 외부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7]. 보육현장에서 교사의 정서는 영유아 보육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최근 들어 학문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9]. 즉,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장시간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영유아뿐 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관리자 및 부모 등과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서 관리와 표현이 중요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의 연령이 하향화되고 무상보육으로 그 수가 확대되면서 보육교사 정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서노동의 유형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다라 다소 다르게 제안되나, 본 연구에서는 Gilstrap[10]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이진화[7]가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척도를 개발한 세 가지 유형(자연적행동, 내면적행동, 표면적행동)을 사용했다. 자연적행동(natural acting)은 개인이 가진 정서가 기관의 표현규칙에 적합하여 별다른 노력 없이 표현되는 유형이고, 내면적행동(deep acting)은 기관의 정서 표현규칙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수행하려 노력하는 행동유형이다. 표면적행동(surface acting)은 기관의 정서표현 규칙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만 실제적인 감정과 다른 정서이다. 이와 같이 정서노동의 세 가지 유형은 내면적-외현적 정서표현의 일치 여부에 따라 분류되므로, 정서노동과 소진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정서노동의 총점 대신 유형에 따른 하위요인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정서노동과 소진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는 세 편[11-13]에 국한된다. 김영은[11]은 충북지역의 보육교사 직무교육 대상자 270명을 대상으로 단일 요인 척도를 사용하여 정서노동의 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보육교사가 정서노동을 높게 인식할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았으며, 정서노동은 소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소진과 비인간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김정희와 최미경[12]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8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연적행동과 내면적행동은 직무소진 전체 및 일부 하위변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표면적행동은 직무소진 전체 및 일부 하위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보고했다.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65명을 대상으로 내면적행동과 표면적행동으로 정서노동을 측정한 김희정[13]의 연구결과에서는 내면적행동이 소진의 총점 및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표면적행동이 소진의 총점 및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정서노동 및 추가적인 독립변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으나,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만 보고하고 각 독립변인의 유의성을 보고하지 않아 정서노동이 소진에 단독으로 미치는 정확한 영향력을 알 수 없다. 이상에서와 같이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소진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은 소진과 유의하게 상관되며, 상관관계의 방향성은 정서노동의 하위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하지만 정서노동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선행연구 결과는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을 자연적행동, 내면적행동, 표면적행동으로 측정하고 각 유형과 소진 간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소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은 회복탄력성이다

[14]. 회복탄력성은 본래 사물의 탄력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나 심리적 변인으로는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15]. 회복탄력성은 유아교사의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밝혀진 바 있으며[16], 세 편의 선행연구[14, 17-18]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소진의 관계를 고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채호[14]는 울산시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18명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소진을 측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관계를 검증했다. 그 결과,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소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복탄력성은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연[17]은 수도권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회복탄력성과 소진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했으며, 나아가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부산광역시와 경남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소진을 조사한 황해익과 동료들[18]의 연구결과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소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소진과 부적으로 상관되며 소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보육교사의 소진은 보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변인이며,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소진과 관련됨을 보여주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실행된 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 및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육현장의 실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보육교사의 소진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심리적인 소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증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 및 소진 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51명이다.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연령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임의 표집하여 선정했다. 연구대상이 담임 맡은 영유아의 연령 분포는 0세 6.4%(n = 16), 1세 25.9%(n = 65), 2세 25.5%(n = 64), 3세 13.9%(n = 35), 4세 10.8%(n = 27), 5세 11.2%(n = 28)였다. 보육교사의 연령 분포는 25세 이하 27.9%(n = 70), 26~29세 19.5%(n = 49), 30~39세 21.9%(n = 55), 40세 이상 30.7%(n = 77)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소진

보육교사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와 Jackson[19]이 개발하고 오선균[3]이 번안 후 이진화[7]가 수정・보완한 소진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16문항으로 비인간화(3문항), 정서적고갈(8문항), 성취감결여(5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보육교사가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로 하위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소진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비인간화 .72, 정서적고갈 .88, 성취감결여 .66, 전체 .76으로 양호했다.

2) 정서노동

정서노동을 측정하기 위해 Grandey[20]가 개발하고 이진화[7]가 번안한 척도를 보육교사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자연적행동(3문항), 내면적행동(5문항), 표면적행동(5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보육교사가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

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각 하위요인별 의미가 상이하여 총점이 아닌 하위요인 점수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정서노동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자연적행동 .61, 내면적행동 .80, 표면적행동 .79로 양호했다.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우열 등[15]이 개발하고 송지연[21]이 유아교사를 위해 수정한 것을 보육교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했다. 본 척도는 27문항으로 자기조절(9문항), 긍정성(9문항), 대인관계(9문항)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보육교사가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자기조절 0.85, 긍정성 0.86, 대인관계 0.81, 전체 0.92로 양호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주요 변인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설문지를 제작 후, 5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문항 이해도 및 소요시간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했다. 본 조사를 위해 수도권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담임반 연령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임의표집하여 선정했다. 연구대상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연구목적을 안내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 조사를 실시했다. 총 2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265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8.1%), 답변이 불성실한 1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5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최종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사용된 척도의 문항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했다. 셋째,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두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 및 소진의 기초통계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Table 1에서와 같이 첫째, 보육교사의 소진 평균은 전체 M = 2.52(SD = 0.58), 비인간화 M = 2.03(SD = 0.72), 정서적고갈 M = 2.60(SD = 0.73), 성취감결여 M = 2.59(SD = 0.51)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평균은 자연적행동 M = 3.99(SD = 0.51), 내면적행동 M = 3.94(SD = 0.50), 표면적행동 M = 3.34(SD = 0.69)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평균은 전체 M = 3.80(SD = 0.45), 자기조절 M = 3.72(SD = 0.51), 긍정성 M = 3.83(SD = 0.57), 대인관계 M = 3.85(SD = 0.49)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의 측정 척도가 5점 Likert식이므로 중간수준을 3점으로 간주할 때, 보육교사의 소진은 중간수준보다 낮고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은 중간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정서노동, 회복탄력성, 소진의 평균과 표준편차(N = 25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Burnout (N = 251)

Variables	Sub-factors	M	SD
Emotional labor	Natural acting	3.99	0.51
	Deep acting	3.94	0.50
	Pretending acting	3.34	0.69
Resilience	Self regulation	3.72	0.51
	Positiveness	3.83	0.57
	Social relationship	3.85	0.49
	Total	3.80	0.45
Burnout	Depersonalization	2.03	0.72
	Emotional exhaustion	2.60	0.73
	Reduced accomplishment	2.59	0.51
	Total	2.52	0.58

2.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 및 소진 간의 관계

첫 번째 연구문제인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 및 소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Table 2). 첫째,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의 하위요인과 소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연적행동은 소진의 전체(r = -.35, p < .01) 및 모든 하위요인(r = -.25 ~ -.42,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내면적행동은 소진의 전체(r = -.18, p < .01) 및 일부 하

위요인(r = -.22~ -.27,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면적행동은 소진의 전체(r = .34, p < .01) 및 모든 하위요인(r = .16~ .38,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자연적행동과 내면적행동을 많이 하는 보육교사일수록 소진이 낮게 나타난 반면 표면적행동을 많이 하는 보육교사일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 및 소진 간 상관관계(N = 25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Burnout (N = 251)

Factor	Sub-factor	Burnout			
		Depersonalization	Emotional exhaustion	Reduced accomplishment	Total
Emotional labor	Natural acting	-.32**	-.25**	-.42**	-.35**
	Deep acting	-.22**	-.08	-.27**	-.18**
	Pretending acting	.25**	.38**	.16*	.34**
Resilience	Self regulation	-.34**	-.36**	-.42**	-.43**
	Positiveness	-.40**	-.50**	-.56**	-.57**
	Social relationship	-.37**	-.33**	-.42**	-.41**
	Sum total	-.44**	-.47**	-.55**	-.55**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소진의 총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11-13]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상관관계의 방향에 있어서 내면적행동과 자연적행동이 소진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표면적행동은 소진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12-13]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단, 정서노동의 세 가지 유형과 소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비인간화, 정서적고갈, 성취감결여) 간 관계 측면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내면적행동과 정서적고갈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선행연구[12-13]의 결과에서는 자연적행동 및 표면적행동이 소진의 일부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상이하다. 이에 지속적인 추후 연구를 통해 정서노동 유형과 소진 간 상관관계의 정도와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소진의 관계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 전체는 소진의 전체(r = -.55, p < .01) 및 하위요인(r = -.44 ~ -.55,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 또한 소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기조절능력과 소진의 전체(r = -.43, p < .01) 및 하위요인(r = -.34 ~ -.42, p < .01) 간, 긍정성과 소진의 전체(r = -.57, p < .01) 및 하위요인(r = -.40 ~ -.56, p < .01) 간, 대인관계능력과 소진의 전체(r = -.41, p < .01) 및 하위요인(r = -.33 ~ -.42, p < .01)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수도권[17] 및 울산시[14]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높은 집단의 소진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18]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보육교사의 높은 회복탄력성은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되어 주변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스트레스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원동력이 되므로[18] 회복탄력성이 높은 보육교사의 소진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와 같이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값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1이상(.41~.88), VIF값이 10이하(1.14~2.42)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했다.

Table 3에서와 같이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은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7.95, p < .001). 각 독립변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표면적행동(t = 5.18, p < .001)은 정적 영향을 미쳤고 회복탄력성(t = -7.06, p < .001)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적행동와 내면적행동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회복탄력성(β = -.46)이 표면적행동(β = .29) 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변인은 소진의 37.2%($_{Adj.}R^2$ =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교사가 표면적행동을 많이 하고 회복탄력성을 낮게 인식할 때 소진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N = 251)

Table 3.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Their Burnout (N = 251)

Independent Variables		Burnout	
		t	β
	(Constant)	14.19***	-
Emotional labor	Natural acting	-1.29	-.09
	Deep acting	.01	.00
	Pretending acting	5.18***	.29
Resilience		-7.06***	-.46
F		37.95***	
$Adj.\ R^2$		.37	

*p < .05, ***p < .001

보육교사의 표면적행동이 소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신의 실제 정서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요구하는 정서표현 규칙에 인위적으로 맞추어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표면적행동이 심리적소진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정서노동 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실행된 바 없으나,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사의 표면적행동이 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2]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소진에 미치는 표면적행동의 영향력을 밝힌 이영미와 민하영[24]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14, 17]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결과를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한 결과,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중 표면적행동은 소진을 가중시키며 회복탄력성은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보육교사가 소진을 경험할 경우, 영유아와 부모 및 보육교직원과의 정서적 교감 없는 상호작용으로 고갈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업무에 대한 성취감이 저하된다. 소진은 업무 효율성의 저하는 물론 이직률을 높이며 일부 상황에서는 영유아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서노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됨을 제안하는 바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 및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의 하위요인과 회복탄력성은 소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적행동과 내면적행동을 많이 하는 보육교사일수록 소진이 낮게 나타난 반면 표면적행동을 많이 하는 보육교사일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가 표면적행동를 많이 하며 회복탄력성이 낮은 경우 소진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론은 보육교사의 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표면적행동의 정서노동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소진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한 지역의 연구대상을 포함한 추후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특정시점에서 보육교사가 인지하는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 및 소진을 측정하여 분석했으므로 시간에 따른 영향력의 변화를 알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 단기종단 연구설계를 적용한다면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유발시키는 정서노동을 유형별로 고찰하고 소진을 경감시키는 회복탄력성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이들 변인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높이고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1] S. Y. Cho and H. A. Koo, "A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f Child 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KJCS), Vol. 26, No. 4, pp. 55-70, 2005.
[2] Kim, J. M., The Effect of Job Stress of Childcare Teachers on Psychological Burnou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Master's Thesis, Hansei University, Kyonggi-do, South Korea, 2017.
[3] Oh, S. K.,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s in Korea. Master's Thesis, Chongju University, Chongju, South Korea, 2001.
[4] S. H. Bae, Y. H. Kim, and S. Y. Han, "Effects of Job Stress, Ego-Resilience and Burnout on Teacher's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Welfare(JECEE), Vol. 18, No. 1, pp. 234-258, 2014.
[5] C. Maslach and A. Pines, "The Burn-out Syndrome in the Day Care Setting," Child and Youth Care Forum(CYCF), Vol. 6, No. 2, pp. 100-113, 1977.
[6] B. J. Kang and Y. S Paik,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Burn out and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s in the Mediating Effects Instructional Creativity and Teaching Efficacy of Day Care Center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KJCM), Vol. 12, No. 1, pp. 145-168, 2013.
[7] Lee., J. H.,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 with Emotional Labor of Childcare Teachers,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Emotional Values, Job Satisfaction, Burnout, D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07.
[8] H. S. Hwang,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and Ego-Resilience on Child Care Teachers' Burnou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FER), Vol. 48, No. 7, pp. 23-32, 2010.
[9] J. S. Yeom, "Practice of Caring and It's Limitation in Early Childhood Classroom,"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JKOAECE), Vol. 25, No. 5, pp. 147-171, 2005.
[10] Gilstrap, C. M., Closing in on Closeness: Teacher Immediacy as a Form of Emotion Labor, Doctoral dissertation, Colorado University, Colorado Springs, USA, 2005.
[11] Y. E.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Burnout and Career Commitment of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JKCCE), Vol. 8, No. 6, pp. 57-76, 2012.
[12] J. H. Kim and M. G. Choi, "Relationship Among Child Care teachers' Personal Characteristic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JEECEC), Vol. 12, No. 2, pp. 51-68, 2013.
[13] Kim, H. J., Emotinoal Labor and Burnout of Child Care Teachers: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and Work Environment,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6.
[14] C.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nvironments and Psychological Burnout: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f Child Care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nd Review(ECERR), Vol. 21, No. 2, pp. 195-214, 2017.
[15] W. Y. Shin, M. G. Kim, and J. H.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SKY), Vol. 20, No. 4, pp. 105-131, 2009.
[16] Lim, H. E.,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s,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South Korea, 2015.
[17] Yang, S. Y., Effects of Job Stress Perceived by Child Care Teachers on Psychological Burnout: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 Efficacy and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9.
[18] H. I. Hwang, J. H. Tak, and H. M. K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 Burnout and Their Self-Esteem in High and Low Resilience Group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JKOAECE), Vol. 19, No. 4, pp. 31-52, 2014.
[19] C. Maslach, S. E. Jackson, and R. L. Schwab, Maslach Burnout Inventory-Educators Survey (MBI-ES). In C. Maslach, S. E. Jackson, and M. P. Leiter (Eds.), "MBI Manual (3r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6.
[20] A. A. Grandey, "Emotion Regulation in the Workplace: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JOHP), Vol. 5, No. 1, pp. 95-110, 2000.
[21] Song, J. Y.,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Burnout and Recovery Resilience in Regard to Kindergarten Teachers Emotional Labor,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7.
[22] Chung, Y. J., The Impact of Emotional Labor of Child Teachers on Burnout: Focusing on the Job Satisfac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7.
[23] Lee, J. Y.,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ctive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14.
[24] Y. M. Lee and H. Y. Min, "The Relationship of Surface Acting in Emotional Labor, Emotional Support from Supervisor, Colleagues, Parents and Burnout of Teachers in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 No. 1, pp. 167-185, 2011.

※ 인천대학교 오진경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